

재외동포들, 전주시 한국 전통문화 배운다

시, 한국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 3년 만에 재개... 22개국 60명 대상 한국어 교육·전통문화체험 등 진행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한국 고유의 정신과 우수한 전통문화를 배운다. 전주시는 이달 26일까지 미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22개국의 재외동포 60명을 대상으로 '2022 재외동포 한국 전통문화연수'가 전주 일원에서 진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시가 주최하고 (사)해방재외동포교육재단이 주관하는 '2022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는 재외동포 아동·청소년과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글학교 교육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6년 시작해 올해로 5번째 운영되고 있다.

올해 한국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에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간 중단됐던 재개됐음에도 22개국 60명의 재외동포가 참가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먼저 진행되는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12개국에서 온 재외동포 아동·청소년들이 12일 서울 주요명소를



이달 26일까지 미국, 프랑스, 말레이시아 등 22개국의 재외동포 60명을 대상으로 '2022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가 전주 일원에서 진행된다.

관람한 후 전주에 도착해 한국의 전통 문화를 배우고 있다. 이들은 13일 한국전통문화재단에서 진행된 입국식을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K-POP, 동요, 가곡 등을 통해 배우는 한국어 교육 △사물놀이, 부채춤, 소고춤, 한지공예 체험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한옥마을 및 전통문화시설 탐방, 전통문화연

수원에서 전통놀이 및 예절교육 등이 있다.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에 이어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은 19개국 30명의 한국어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수법' 전문가 특강 △사물놀이, 한삼춤, 부채춤 등 다양한 전통문화체험 △한옥마을, 경기전, 전라감영 등 문화시설 탐방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시는 올해 프로그램 종료 후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조사한 후 향후 더 나은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가 2년간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외동포 아동·청소년과 한국어 교사들의 관심이 지속돼 매우 기쁘다"면서 "전주를 찾은 재외동포 아동·청소년들과 한국어 교육자들이 다양한 체험과 교육을 통해 모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본국에 돌아가 전주와 한국의 훌륭한 문화 홍보대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혈세 낭비 없도록 촘촘히 감시”

전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장 최주만·부위원장 이성국 의원 선출



최주만 의원 이성국 의원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4일 예산안 심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주만(3선, 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과 부위원장에 이성국(조선, 효자동)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위원들은 의장이나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들로 김성규, 김윤철, 김정명, 신유정, 이국,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채영병, 최주만, 천서영, 최홍철, 최지은 의원 등 모두 14명이다.

최주만 예결위원장은 “시민과 의원들의 의견을 현실감 있게 반영

하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히 감시하고 심사할 것”이라며 “특히 새로운 집행부의 개발 위주의 정책에 따른 예산 낭비가 없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먹거리·볼거리 찾아 다시 전주로”

관광객 600여명 대상 여행 실태조사 결과 83% 재방문 의사 밝혀

관광객들이 전주를 찾은 여행객의 83%가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에 반해 향후 전주 재방문의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는 지난 4월과 5월 두 달 간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전주시민을 제외한 외국인 관광객 314명과 내국인 관광객 321명을 대상으로 전주 여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전주를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한 응답자는 외국인과 내국인이 각각 80.9%와 85.7%로 집계됐으며, 그 이유는 볼거리와 음식이 꼽혔다.

전주 여행과 연계해 방문했거나 방문예정인 도시로는 외국인의 경우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와 연계한 반면, 내국인은 군산·익산 등 인근 도시와 연계해 방문한 경우가 많았다. 전주를 방문한 연령층은 20대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유학생의 비중이 높았다. 전주 여행 시 함께한 동반자로는 외국인은 친구가 40.7%, 내국인은 가족이 54.5%로 높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외국인은 시외·고속버스, 기차 등 69%가 대중교통이었고, 내국인은 63.2%가 자가용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응답자 중 전주를 처음 방문

했다고 한 외국인인 약 80%로 나타났다. 과거 전주여행을 경험한 외국인의 평균 방문일이 4.3회로 나타나 전주가 다시 찾고 싶은 여행지가 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전주를 처음 방문한 사람은 31.8%로 나타났으며, 재방문율은 4.6회로 외국인 관광객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주에서 숙박한 관광객은 외국인은 71.7%, 내국인은 64.2%로 집계됐으며, 숙박 장소는 외국인의 경우 게스트하우스와 한옥숙박, 내국인의 경우 호텔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에서 머무는 기간 외국인은 평균 11.7만 원가량을 지출했으며, 이 가운데 숙박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내국인은 평균 12.9만 원가량을 소비했으며, 식음료비 지출이 가장 컸다. 전주관광 등 방문에 대한 종합 만족도는 외국인의 경우 96.2%였고, 내국인 관광객은 81.3%였다.

실문조사는 응답자 특성(국적, 성별, 연령, 직업 등) △전주여행 형태(방문횟수, 동행자(수), 교통수단, 체류기간 등) △전주여행 평가(관광중요도 대비 만족도, 재방문 의도, 추천의향 등) △지출경비 등 18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주시 거주자와 20대 이하 관광객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윤상기자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로 만나요

전주농기센터, 19~20일 전주종합경기장서 진행

전주시 대표 농산물인 고당도 명품 전주복숭아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열린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는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제24회 명품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를 개최한다.

전주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이번 직거래 행사는

지난 2년간의 드라이브 스투 방식에서 벗어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대면 직거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복숭아 품종회 및 수상작 전시 △복숭아 관련 체험이벤트 △초대 가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이 가득한 부대행사도 준비됐다.

복숭아 판매가격은 행사 당일 도매 시장 경락가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과중, 크기, 당도 등 규격과 품질검증이 완료된 장택백봉, 마도카, 대옥계 등 주력품종들이 1상자 당 3kg 기준으로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될 예정이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고품질 전주복숭아 직거래 행사가 전주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복숭아 농가의 소득 향상

/김윤상기자

전주시, 전국 규모 체육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단비'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국면 따라 그간 개최되지 못했던 16개 대회 전주시 개최

전주시가 다양한 종목의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코로나19 완화 국면에 따라 그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16개 국제·전국규모 체육대회가 전주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제5회 전국여성축구대회 △제3회 전국스포츠클라이밍동호인대회 △제59회 전국남녀활쏘기대회 △제23회 대한불림협회장배 전국불림대회 등 4개 대회가 열려 전국에서 온 선수단과 가족 등이 전주를 찾았다.

이어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제16회 회장배 전국스쿼시선수권대회'가 전북체육회관과 전주비전대학교 스퀘시경기장 등 전주 일원에서 개최되고, 22일부터 26일까지는 '제51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학생사이클대회'가 전주시 경륜장에서 열린다.

다음 달에는 전국의 수영 엘리트 선수들이 모여 경쟁하는 '제41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들 대회는 전국의 엘리트 선수들이 참가해 경쟁하는 대회인 만큼 선수단과 가족 등 다수가 전주를 찾아 숙박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2022 국제초청 넷볼대회 △2022 전국클럽대항아구대회 △2022 천년전주 율령기 전국대회 △2022 전국부부가족마라톤대회 △2022 전국지체장애인체육대회 △제13회 전주한옥마을 전국배드민턴대회 △2022 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제23회 이창호배 전국아마비복선수권대회 △제5회 전주한옥마을 전국축구대회 △2022 전주오른쪽배드민턴대회 △2022 어울림마당 전국기복대회 등 크고 작은 전국 규모 대회가 순차적으로 전주에서 개최된다.

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회 유치를 위해 2023년도에 개최 예정인 국제·전국규모 체육대회의 공모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공모는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전주 개최를 희망하는 대회 담당자는 전주시체육회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와 관련, 오는 9~10월 중 개최되는 '전국 규모 국내외 체육대회 전주시 유치협의회'의 내부심사와 시외의 이결 등을 거쳐 2023년도 전주시 지원 보조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국 규모 체육대회의 개최가 전주시의 체육 지면을 넓히고 전주시가 명실상부 체육도시로 자리잡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코로나19 시기에 침체되었던 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보건소, 온빛중서 진로체험·치매안심 지킴이 교육 실시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중단했던 전주시보건소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재개됐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진선)는 14일 전주온빛중학교(교장 양정복) 3학년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진로체험 현장교육 및 치매안심 지킴이(파트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교육부 '꿈길'(www.goomgil.go.kr)을 통해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진로체험프로그램으로, 전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체험을 통해 스스로 적성을 발굴하고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참여한 온빛중학교 학생들은 치매안심지킴이(파트너) 교육 및 진로 체험을 통해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의 역할과 주요 업무, 사업들에 대해 청취하고, △△보건소의본야 직렬 설



전주시보건소는 14일 전주온빛중학교 3학년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진로 체험 현장교육 및 치매안심 지킴이(파트너) 교육을 실시했다.

명 △치매 보건 교육 및 실습 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진로체험교육을 받았다.

또한 치매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

인지훈련의 필요성 인지를 위한 체험 활동으로 색깔 예뻐 만들기 체험도 실시했다.

보건소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에게는 현장감 있는 진로 체험교육 지원하고, 청소년의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관심을 유도해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학교 등에 찾아가는 치매파트너 및 파트너플러스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치매를 바로 알고 함께 극복하는 치매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김진선 전주시보건소장은 “미래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치매를 앓는 환자나 가족을 배려하는 따뜻한 이웃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청소년들의 참여로 치매 걱정 없는 전주를 만드는 데 밝은 희망이 보인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 반려식물 식재공간 조성

전주농기센터, 시민 맞춤형 교육

전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는 새로운 도시농업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 실내·외 반려식물 식재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예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 조성된 반려식물 식재공간은 △벽면녹화 △실내 정원 △실외 허브정원 △노년화단 등으로 다양하다. 이곳은 지난 4월부터 시민들의 원예기술 교육 강의실 및 실습장으로 활용됐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가 운영한 원예 기술교육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노인, 아동, 여성 대상 맞춤형 교육으로 3개 과정이 진행됐다.

노인 대상 맞춤형 교육의 경우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용 반려

식물 심기 △노년화단에 남새밭 꾸미기 △실문지 화분 만들고 삼목하기 △정원식물을 활용한 스페이싱 향기 방향제 만들기 등 인지기능 향상기법을 적용한 내용들로 진행돼 교육감과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아동 대상 교육은 △어버니얼 맞이 캐네이션 꽃바구니 꾸미기 △특별한 가족 반려식물 심기 △식물을 이용한 나만의 미니정원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탐구능력을 기우고, 정서 안정 및 생명의 소중함을 알도록 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여성 대상 교육은 △가사 디자인하는 치유정원 만들기 △다양한 허브와 꽃 관할하기 △삼사꽃바구니 만들기 등 갯년기 여성의 활력과 자존감 회복을 위한 위와 힐링을 선사하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